

개헌 고집 아베, 지지율만 믿다 최악 참패

與 도쿄도의회 역대 최소 23석 방위상 경질 등 불끄기 나서 아베, 사학 비리 책임 불가피 내년 3연임 최장 집권 빨간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2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중·참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로 의미를 축소하기엔 충격이 너무 크다.

또 여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2009년 중의원 선거의 패배로 당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악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베 총리는 3일 오전 당 총재 자격으로 자민당 임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고 도의회 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한 원인을 분석하고 민심 회복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여권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개각과 당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 가네다 가쓰시(金田勝年) 법무상이 우선 경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자위대에 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고, 가네다 법무상은 조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직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야권과 마찰을 빚어왔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의원 등의 전면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스가 관방장관, 아소 부총리, 아마리 아카리(甘利明) 전 경제재정상 등과 약 2시간 저녁을 함께 하며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결정하게 받아들이고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결속해서 정책을 중시하는 정권을 운영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런 의지와 달리 여론에서 이탈한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여론 내에서도 예상을 뛰어넘었던

참패에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번에 획득한 23석의 의석은 과거 최소 의석이었던 2009년, 1965년의 38석도 밑도는 것인데다, 현 의석(57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 밖에서도 변수가 적지 않다. 일단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의 향후 행보도 아베 총리의 위기 수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이케 지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선거 압승을 이끌어낸 도민파스트(우선)회를 토대로 전국정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민진당 등 야권도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즉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짊어질 세력이다. 당 안팎의 악재에 맞서 아베 총리가 개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심 돌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3연임(총 9년)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일본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아베 총리가 조기에 이번 민심을 다잡지 못할 경우 내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개헌 추진 등 그가 계획했던 정치 일정도 흔들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가 조기에 이번 민심을 다잡지 못할 경우 내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개헌 추진 등 그가 계획했던 정치 일정도 흔들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9 당 태종의 책사 방현령

방현령(房玄齡, 579-648)은 산동성 임치 출신으로 방언겸의 아들이다. 이 세민의 참모가 되어 현무문의 정변 때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태종 즉위 후 정관성세(貞觀盛世)가 구현되는데 기여했다.

18세에 진사가 되어 관직에 나섰다. 고조 이연이 진양에서 거병해 장안에 들어와 당나라를 건국하자 이세민의 휘하에 들어가 최고의 책사가 되었다. 차남인 이세민이 왕세종과 두견덕을 격파해 당의 통치기반을 굳건히 하자 세민의 건성 세력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건성은 동생 원길과 함께 세민 세력을 제거하려 획책했다. 세민은 형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정변 대결을 주저했다. 세민은 탄식하며 “형제간

레” 등의 편찬작업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수말 천하대란에 따른 경제안정과 법질서 붕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민생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정관 4년 그는 태종에게 국가의 갑옷과 무기가 수나라 때 수준으로 갖추어졌음을 보고했다. 당의 국력이 서서히 호전된 것이다. 태종은 이에 대해 “백성들이 편해지면 나라 역시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흐트러진 법질서 회복에 올인했다. 역을 행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형을 줄이고 신중히 집행하도록 했다. 수양제 시절에는 닭 한 마리를 흘려도 살인에 처해질 정도로 법 집행이 가혹했다. 그러나 태종 시대에 이르러 사형 집행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는 아침부터

현무문의 정변 주도... ‘방모두단’ 활약

에 서로 헤치는 것은 고금에도 가장 큰 죄악이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기다린 연후에 정의로 토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그는 태자 측에 선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왕의 공적이 하늘을 뒤덮을 만하니 마땅히 대업을 이으셔야 합니다.” 결국 방현령, 장손무기, 위지경덕 등의 주장을 채택해 현무문에서 기습공격으로 건성과 원길을 죽였다. 고조는 퇴위했고 태종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조정안팎의 인재를 끌어모아 세민의 세가 확장되도록 노력했다. 현무문의 정변이 세민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은 이 때문이다. 태종이 즉위하자 중서령이 되고 형국공에 봉해졌다. 이후 재상인 상서좌복야로 승진했다.

정관 시대를 흔히들 ‘위대한 재상의 시대’라고 한다. 방현령, 두여회, 위징, 왕유, 저수량 등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재상직에 올라 위로는 황제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통솔하고 위무했다. 정관 초기는 방현령과 두여회 콤비가 크게 활약했다. 방모두단(房謨杜斷), 방현령이 계획을 세우면 두여회가 이를 과감히 실천한다는 고사다. 법규와 제도에 익숙한 방현령은 정관 초기 당의 통치제도와 관료시스템이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태종의 명을 받들어 진서(晉書) 편찬을 주도했고 ‘당률소’ ‘대당신

방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국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그만 실수도 용인치 않았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삼갔다. 그는 누구보다도 창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창업과 수성에 관한 논쟁에서 “천하가 혼란스러우면 영웅들이 다투어 일어난다”며 창업의 고통을 강조했다.

정관 말년 후계자 문제와 요동 정벌 문제로 태종과 갈등했다. 그는 위왕 이태의 후원자였다. 장남 이승건이 태자 자리에서 내려오면 차남인 위왕이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후일 고종이 된 진왕 이치를 장손무기, 저수량 등이 적극 밀었다.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해졌다. 요동 정벌에 대한 반대로 태종과 사이가 틀어졌다. 태종은 스스로 요동 정벌에 나서 반복 입장의 고구려를 정벌하고 싶었다. 그는 요동이 장안과 너무 거리가 멀고, 식량이나 군수물자 등의 조달이 용이치 않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정관 18년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자 수도 장안의 방어를 맡았다. 그가 배신했다는 고변을 듣자 태종은 고발자를 즉석에서 목벌 정도로 황제의 신임이 두터웠다. 648년 중병이 들자 태종이 직접 문병하고 궁중 음식을 하사하는 등 애정이 각별했다. 사후 문소(文昭)라는 시호를 내리고 태위로 추증했다. 그는 정관성세를 가져온 시대의 명신이었다.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미국 언론 “동맹국 과도한 압박” 못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들을 놓고 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느닷없이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렇지만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여 만에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FTA 재협상’ 표현이 빠져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는 LA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앞서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워싱턴특파원 단과의 간담회에서 “협의 외의 이야기”라

고 재협상론을 일축했다.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게서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로 무역 압박을 받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문제를 거세게 비판할 것이라는 예상 밖”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의 사실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미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관세 철폐가 더 확대되면 미국의 수출 기회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중국 폭우로 가스관 폭발...8명 사망 중국 남부 구이저우(貴州)성에서 천연가스관 폭발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44분 구이저우성 첸시난부이족마오족 자치주의 청릉(晴隆)현에서 천연가스관이 폭발했다. 통신은 최근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함몰되면서 가스관이 부러지며 가스가 새 나와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폭발한 가스관의 모습. /연합뉴스

싸고 좋은 모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융자 8-10억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